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2호 【루계 제25040호】 주체104(2015)년 9월 19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자

10월의 경축광장을 빛내일 자랑찬 창조의 열매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이룩한 전례없는 과학연구성과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여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대학의 책임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전례없는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연구력량편성을 실속있게 짜고들고 교원, 연구사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대고조전투장들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고 연구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교원, 연구사들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올해 첫시작부터 기세좋게 내달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훌륭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뜻깊은 2015년의 첫 성과를 마련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신 평양시버섯공장의 자랑찬 모습속에는 공장의 총공정설계로부터 시작하여 내열성수지병에 의한 버섯재배방법을 확립하고 대용기질에 의한 버섯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한것을 비롯하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바친 노력과 열정도 뜨겁게 슴배여있다. 당의 구상대로 현대적인 버섯생산기지를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한 건설자들과 련관단위의 일군들과 로동계급, 여러 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도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더 큰 힘과 용기를 안고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좋은 성과들을 련속 안아왔다.

지난 2월에는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다그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록파가스중화제생산공정을 완비하고 현실에서 온을 내도록 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으며 온실환경종합측정장치를 비롯하여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남새농사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위한 수십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도입하여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 또다시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지난 8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온부식방부제, 살균제를 우리 나라의 원료에 기초하여 자체로 개발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감사를 받아안은데 이어 평양강냉이가공공장의 과학기술보급실에 대학에서 새로 개발한 광학식전자칠판을 설치해준것을 비롯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을 높은 과학적토대우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줌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언제나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쳐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대고조전투장들에 달려나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풀어주는 헌신적인 기풍도 발휘하였다. 이들은 과학기술전당의 종합정보봉사체계개발과제수행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고있고 190여건의 전시대상을 제안한데 기초하여 그에 따르는 310여건의 세부학술안구성과 설계를 진행하고 108건을 직접 맡아 수행하였으며 국문잡지수자화를 비롯한 각종 자료기지화사업과 《콤퓨터대중백과사전》편찬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 파견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수자지도작성과 환경영향평가, 통합생산지휘체계를 위한 큰물관리 및 자료통신보장, 지질구조해명, 접지망형성문제들과 송전선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2배이상 높일수 있게 하였다. 특히 력학부 탄소성력학강좌 교원, 연구사들은 10호발전소언제수문의 용접잔류응력을 낮추기 위하여 여러해동안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전투를 벌리였으며 그 과정에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천t의 강철을 절약할수 있는 결정적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위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세포지구 축산기지 통합생산관리체계를 성과적으로 개발하고 양수풍차를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공장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쳐 지하전동차의 대차와 차체의 용접응력과 변형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완성한것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짧은 기간에 내놓아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개발을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대학에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화장품공장, 류원신발공장, 평양수지연필공장, 자연박물관건설장과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공사장 등 여러 전투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수많이 맡아 풀어주는 좋은 기풍을 발휘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적극 떠미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도 수많이 이룩하였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연구사업이 추진되였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대학의 많은 교원, 연구사들은 현장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20여건의 연구과제들을 목표로 설정하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순천화력발전소에 파견된 교원, 연구사들도 현장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중유절약기술을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생산정상화에 절실히 필요한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화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은 수입에 의존하던 6종의 각종 윤활유들을 국산화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련관단위 일군들과 힘을 합쳐 현지에서 마지막전투를 벌리고있다.

자연에너르기를 적극 개발리용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는 태양빛발전체계개발을 위한 연구, 풍력에너르기개발리용과 관련한 연구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현실에 도입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학에서는 나라의 농업발전을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식물성장촉진제 《증산—2》호의 도입사업을 적극 벌려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온실남새생산을 늘이는데 기여하였으며 세포등판의 풀판조성과 황해북도를 비롯한 전국각지 수만정보에 달하는 알곡 및 남새작물에 도입하여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앞당기고 수확고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대학에서는 지난해 염주군의 수천정보의 논에 우렁이유기농법을 도입하여 알곡증수에 크게 기여한 성과에 기초하여 올해에는 수도의 여러 농장들에 우렁이양식장을 꾸리고 우렁이유기농법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우렁이에 의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도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으며 벼농사뿐아니라 축산물생산에도 확대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토지보습제 《테라코템》에 대한 연구를 계속 심화시켜 비료주는 량을 줄이고 로력을 1/3로 줄이면서도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 성과를 평양국제비행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하였는데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고 한다.

대학에서는 복합영양액 《부흥—1》호를 개발하여 전국의 여러 협동농장들에 시험도입하여 알곡소출은 115~120%, 남새소출은 130~150%이상에 달한다는것을 확증하였다.

대학에서는 산림복구전투에 이바지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있다. 지난해 5월부터 고분해능위성화상해석기술과 지리정보체계기술을 결합한 전국산림관리정보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산림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자료기지를 구축하였으며 자체로 개발한 나무뿌리성장촉진제, 나무영양액, 잎보호제를 수도와 지방의 여러 단위들과 산림지구들에 도입하여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도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대학에서 올해에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국제적인 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있으며 아마—콩영양교갑알약을 개발한 생명과학부 연구사는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발명가메달과 증서를 수여받았다.

체육성에 파견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실시간 축구경기분석체계를 도입하여 우리 선수들의 승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안받침해주었으며 우리 선수들의 물에뛰여들기동작에 대한 력학적해석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우리 선수들의 체질에 맞는 훈련방식을 제기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지난 7월에 진행된 제16차 국제수영련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가 1등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개발한 체육과학연구성과들은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련속 우승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발전된 몇개 나라에서만 생산되는 첨단통신설비인 수자식중심교환기를 체신성의 기술자들과 함께 국산화하여 국가체신망에 도입함으로써 주체적인 통신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비루스악전프로그람개발과 응용에 대한 연구에서 큰 전진을 이룩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이룩한 성과는 참으로 크다.

대학에서 이룩한 전례없는 과학연구성과들은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기풍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10월의 경축광장을 자랑찬 과학연구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진군에 박차를 계속 가하고있다. 이들의 불타는 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10월의 경축광장을 빛내이는 알찬 과학연구성과들을 계속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강진형

완공을 앞당기며 공사성과 확대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장에서 전반적인 공사를 빠른 속도로 결속하기 위한 마지막총공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는 부강하고 문명한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크나큰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을 느끼게 되며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당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혁명적열정에 떠받들려 고층 및 초고층살림집들의 창문설치를 비롯한 내외부공사와 공공건물, 수십동의 봉사시설을 안팎으로 손색없이 완성하기 위한 총공세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건설장적으로 다님길과 공중건늘길, 지대정리공사가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속에 현대적인 새거리의 면모는 갈수록 확연히 드러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건설은 묶음식, 탑식으로 된 고층 및 초고층살림집들과 큰 규모의 공공건물 및 봉사시설들을 반년안팎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완공해야 하는 어렵고도 방대한 창조사업이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와 모든 시공단위 지휘관들은 당에서 중시하는 건설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공사조직과 지휘를 보다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모든 공사추진정형을 손금보듯 장악하고 건설대상들에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투작전이 펼쳐지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를 상징하는 53층살림집건설을 맡은 여러 부대장병들이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은 불같은 공격전을 벌려 불과 20일 남짓한 기간에 근 300세대에 달하는 살림집들의 내부미장과 타일붙이기를 전부 끝낸 기세로 당면한 복도바닥돌시공성과를 부쩍 확대하고있다.

84—가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부대장병들도 맡은 건설대상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곳 지휘관, 병사들은 건설장적으로 많은 공사량을 맡아 수행하는 조건에서도 긴장한 전투를 벌려 복도바닥돌시공을 포함한 살림집내부공사의 대부분을 완성하고 타일붙이기와 봉사시설공사, 지대정리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79—나호동살림집건설장에서도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지난 골조공사과정에 남다른 위훈을 떨친 부대장병들은 살림집벽체타일붙이기와 미장공사를 결속하고 난방관늘이기를 비롯한 나머지공사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인민군대의 단숨에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수도건설위원회아래 여러 단위 건설자들이 마감공사에서 우리 시대 건설자의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은 공공건물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중학교건물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맡은 부대장병들은 학교건물의 내부미장과 타일붙이기를 전부 끝내고 복도제단시공과 운동장닦기, 울타리공사를 립체적으로 추진하여 건물과 그 주변의 모습을 하루가 다르게 일신시키고있다.

영화관건설을 맡은 부대장병들과 봉사8호동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맡은 철도성려단 일군들과 전투원들도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유보도식당을 포함한 모든 건설대상의 마감공사성과를 확대하여 위훈의 창조자들로 자랑떨치고있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맡은 건설대상을 하루빨리 완공하려는 시공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 각계층 지원자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10월의 대축전장을 뜻깊게 장식하게 될 미래과학자거리건설완공의 함성이 울려퍼질 날은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

글 본사기자 지원철
사진 본사기자 림학락

4호회전로동체조립 완성

보산제철소 생산능력확장공사를 맡은 금속건설사업소에서

금속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총진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얼마전 길이가 근 90m에 달하고 직경이 큰 강철구조물인 4호회전로동체조립이 전부 끝났다. 회전로동체와 먼지잡이, 배풍계통을 비롯한 천여t의 설비와 제관품조립이 기본적으로 끝난 결과 보산제철소에 또 한기의 주체철회전로가 일떠서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금속건설사업소는 지난 기간 나라의 중요대상건설장마다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온 단위이다. 최근년간에만도 보산제철소의 3호주체철회전로를 건설한데 이어 처리능력이 큰 선별장을 일떠세워 나라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지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지금 건설중에 있는 4호주체철회전로건설공사만 끝나면 보산제철소의 생산능력을 확장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더 많은 제강원료를 보장하게 된다.

지난해 방대한 량의 공사과제인 선별장건설을 다그치던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앞에는 4호주체철회전로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어려운 과업이 나섰다. 로력과 자재, 건설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하지만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선 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립체적으로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였다.

품이 많이 드는 낡은 산업구조물보수공사와 수백t에 달하는 벨트콘베아운반계통, 파쇄 및 선별공정들에 대한 설비조립, 제품출하장건설공사를 다그쳐 끝낸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4호주체철회전로동체조립에 총력량을 집중하였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능력이 큰 선별장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당창건 일흔돐을 맞으며 4호주체철회전로를 기어이 완공할 불같은 열의가 차고넘치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김정학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단위별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고 호소성이 강한 방송, 직관선전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선식정치사업을 전투현장에 접근시켜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였다. 그리고 대상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고 기능공들과 밤을 새워 공사기일을 단축할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며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힘차게 울리였다.

지난 6월 긴장한 전력사정으로 회전로동체조립이 늦어질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 현장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돌파할 불같은 맹세들이 울려나온 속에 용접기능공들을 자체로 키우고 그 력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돌파구를 열자는 방도들도 나왔다. 이어 공사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들은 전력공급시간을 최대한 리용하기 위해 낮이나 밤이나 전투현장을 떠나지 않고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이동식산소발생기도 자체로 해결하여 조립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림도선, 리춘재, 리성호, 박만복, 김광남동무를 비롯한 연공들은 12m높이의 습식제진기본체조립에서 1단씩 조립하던 기존관례를 타파하고 지상확대식조립방법으로 단번에 3단씩 조립하여 공사기일을 보름이상 앞당겼다. 박룡수, 조혁동무들은 연공들과 함심하여 20m에 달하는 중량물을 토막내지 않고 두대의 자동차를 련결하여 운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제관직장과 공무직장의 로동자들은 교대가 따로 없이 용접불꽃을 세차게 날리면서 여러기대맡아보기를 진행하여 수백t의 제관품과 부속품가공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지금 금속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다. 내화벽돌쌓기작업이 시작된 며칠동안에만도 수백t이 축조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가 벌어지는 공사장은 불도가니를 련상케 하고있으며 부대설비설치와 지대정리작업이 립체적으로 추진되여 완공의 날을 그려보게 하고있다.

성과가 확대될수록 공사지휘부에서는 일정별전투목표와 설비, 자재보장실태를 면밀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강철전선 계속 힘있게 지원

전국각지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금속공장들에 더 많은 파철을 보내주어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다져나가는데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파철모으기에 떨쳐나선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8월에 높은 실적을 올린 기세로 9월에도 계속 지원열의를 높여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파철모으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제철, 제강소들에 파철을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각 도, 시, 군의 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 파철모으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인식시키고 군중적운동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량강도에서 전례없는 실적을 올리고있다.

지난 8월에 량강도에서는 파철모으기계획을 235.8%로 넘쳐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9월에 들어와서도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량강도의 당조직과 행정경제기관 일군들은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 내려가 파철모으기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결과 대홍단군, 갑산군, 김형직군을 비롯한 많은 시, 군들에서 파철모으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이 사업이 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전달에 이어 이달에도 계속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에서도 일군들부터 파철모으기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옳은 방법론으로 대중을 발동하여 많은 량의 파철을 강철전선에 보내주고있다.

함경남도, 남포시, 함경북도에서는 당의 의도대로 못쓰게 된 설비들을 폐기하여 더 많은 파철원천을 찾아내는 사업을 대담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모아놓은 파철을 제철, 제강소들에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개천철도국과 청진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수송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짜고들어 파철수송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영광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조국의 전진속도에 호흡을 맞추며 강철전선지원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는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애국적투쟁은 뜻깊은 10월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1단계 생산능력확장공사 적극 추진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에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에서 1단계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봉천갱과 옥정갱의 심부에서 생산되는 석탄을 종합벨트콘베아수송선으로 빨아내기 위한 공사와 갱들에서 전망이 좋은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동시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종합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완공되면 봉천갱, 옥정갱의 석탄운반능력이 종전에 비해 1.5배이상으로 높아지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봉천갱을 중심으로 지하막장들로 뻗어나가는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일군들과 탄부들의 열의밑에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석탄공업성과 최고검찰소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와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해당한 실무적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와 탄광에서는 갱들의 채굴심도가 깊고 분산되여있는 자체의 특성에 맞게 1단계로 봉천갱과 옥정갱에서 나오는 석탄을 대대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고 2단계에 혁신1갱과 혁신2갱을 비롯한 모든 갱들의 석탄을 종합적으로 뽑아낼 작전을 펼치였다.

지금 탄광에서 진행되고있는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는 1단계 생산능력확장공사이다.

탄광에서는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돌격대를 조직하고 내부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있다.

1단계 생산능력확장공사에 동원된 탄광의 돌격대원들은 봉천갱의 지심으로부터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을 구간까지, 봉천갱과 옥정갱사이를 련결하는 근 2천m에 달하는 갱도확장 및 영구화공사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였다.

공사의 나날 돌격대원들이 처리한 버럭은 근 1만㎥에 달한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개천탄광기계공장과 각 탄광공무기지들에서의 벨트콘베아수송선 부분품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책임적으로 풀어주고있다.

9월 15일현재 벨트콘베아수송선 상부틀, 하부틀설치공사가 끝났다. 설비들이 들어서는 차제로 조립을 다그치면 탄광에 새로운 벨트콘베아수송선이 생겨나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당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련합기업소와 탄광일군들, 탄부들은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련계와 호혜적인 협조가 우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도 발전되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
각하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성과를 거두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따쥐끼스딴공화국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2015년 9월 5일 두샨베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오만추장국 추장
까부스 빈 싸이드
2015년 9월 7일 마스까트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뚜니지공화국 대통령
무함마드 알 바쥐 까이드 앗 씹씨
2015년 9월 7일 뚜니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 67돐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관계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각하께서와 그리고 귀국인민이 명절을 즐겁게 경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수반
하지 하싸날 볼키아흐
2015년 9월 8일 반다르 세리 베가완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가장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면서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아울러 친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과 진보,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싼 마리노공화국 집정관
안드레아 벨루찌
로베르또 벤뚜리니
2015년 9월 8일 싼 마리노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이 되는 경사스러운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축하와 축원을 보내게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훌륭한 계기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현존하는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부합되게 계속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남부수단공화국 대통령
쌀바 키이르 마야르디트
2015년 9월 9일 쥬 바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친근한 벗이신 제1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공화국정부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를 재확언합니다.
친근한 벗이신 제1위원장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합니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2015년 9월 9일 말라보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강력한 호상협조의 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는데 대하여 확언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에쥐프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
2015년 9월 9일 까히라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까타르국가 인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따뜻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발전이 있을것을 가장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까타르국가 추장
따밈 빈 하마드 알 타니
2015년 9월 9일 도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 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났다

【평양 9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1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홍인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을 만나 동포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게 된 근본요인과 어머니당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인민은 사회주의의 기초이며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이다.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면 지심깊이 뿌리내린 거목처럼 그 어떤 광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당과 인민과의 혼연일체는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할 때만이 이룩될수 있다. 당을 어머니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따뜻이 돌봐주듯이 당을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세심히 보살펴주는 진정한 인민의 향도자로, 보호자로 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여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위대한 당으로 건설한다는것이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령도풍모, 인민을 위한 한평생의 업적이 깃들어있고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당의 불패성의 담보가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우리 당의 인덕정치는 더욱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인민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열과 정을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을 어머니라 부르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당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있다.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야말로 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루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주고 그들모두를 보람찬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어머니이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진실하다. 하기에 어머니는 못난 자식, 말썽많은 자식도 차별없이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것이다. 그러나 자식을 깨우치고 돌보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사랑에 젖어있고 믿음에 넘쳐있는 우리 당의 목소리는 온 나라에 울리고있다.
우리 당은 이 땅에 생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값높은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위대한 당이다. 전투임무수행중에 장렬하게 희생된 혁군용사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준 위대한 품, 돌이킬수 없는 파오를 범한 사람들도 따뜻이 품어안아 재생의 길로 이끌어주며 평범한 사람들의 말 못하는 괴로움도 남먼저 알고 가슴속에 숨긴 뜻도 헤아려주는 품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의 품이다. 우리 인민들은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영광의 대오에 세워주는 우리 당을 혁명의 어머니로 칭송하며 따르고있다.
우리 당은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어머니이다.
이 세상의 좋은것을 다 자식들에게 안겨주고싶어하고 오만자루의 품을 들이면서 고생을 해도 자식들의 행복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것이 어머니이다. 우리 당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들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며 인민의 소중한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고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가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희한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전민이 과학기술인재로 자라나고있으며 고마운 사회주의시책들이 끊임없이 실시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큰물피해로 살림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라선시수재민들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고, 자신께서 직접 피해복구현장을 돌아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며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있다.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인민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살고 이 땅에선 모든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에 넘쳐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누구나 부르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에는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공고한 혼연일체의 세계가 어려있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어머니 우리 당의 참모습이 비껴있다.

윤철희

반제계급의식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력한 정신적무기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반미교양, 계급교양의 거점인 신천박물관을 끊임없이 찾고있다.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를 더욱 깊이 새겨주는 복수심의 발원점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제계급의식을 천백배로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제계급적립장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며 사상진지, 계급진지의 공고성이자 사회주의의 불패성이다.
원쑤들과의 치렬한 대결을 통반하는 혁명의 길에서 절대로 흐려지지 말아야 하는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반제계급의식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투철한 관점, 찍어면 찍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굳은 신념, 피는 피로써 갚겠다는 멸적의 의지가 없이는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수 없다. 사회주의의 운명은 반제계급의식의 견결성에 달려있다.
사상이 탈색되면 붉은기가 퇴색되게 된다는것은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들이 남긴 력사의 교훈이다. 우리 혁명의 력사는 사상적견결성, 계급적원칙성의 끊임없는 계승의 력사로 빛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구한 혁명의 길에서 반제계급의식을 뼈에 새기였다.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전로정에서 승리만을 펼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반제계급의식은 생명과 같다. 혁명의 개척기에 휘날리던 붉은기가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오늘도 사회주의기치로 힘차게 휘날리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밖에 없다.
지금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침략책동과 함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자본주의독소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주적관을 흐려놓아 우리 조국땅을 제2의 신천으로 만들자는것이 미제의 흉심이다. 신천땅은 오늘도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야수적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며 원쑤들에 대한 피의 복수를 부르고있다. 적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여도 계급투쟁의 력사와 진리는 흐려놓을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반제계급의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총창들마다에 매일, 매 시각 깊이 새겨지고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맥동치고있다.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은 수령결사옹위의 성벽을 굳건히 쌓고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초석이다.
사회주의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수령은 사회주의승리의 기치이다.
사회주의운동력사를 돌이켜보면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은 사회주의를 붕괴시키기 위한 공격의 예봉을 로동계급의 수령들의 사상을 외곡변질시키고 업적을 허무는데로 돌렸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반제계급투쟁은 혁명의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결사전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혁명의 원쑤, 계급적원쑤들이 발악하면 할수록 수령옹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는것이 계급적본분과 사명감을 자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건설과정이 시련과 난관의 련속이였지만 지난 1990년대는 말그대로 최악의 역경의 시기였다.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졌을 전대미문의 고난속에서도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고 온 나라에는 수령결사옹위의 구호가 힘차게 메아리쳤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를 사수하는 성새, 방패가 되고 당의 선군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었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가 우여곡절을 모르고 승승장구할수 있었다.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이다. 오늘 우리가 틀어진 계급의 총대도 수령옹위의 총대이며 천만의 심장에 간직된것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으려는 계급적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결사의 의지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수령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삼고 당중앙과 사상과 뜻, 숨결을 같이하며 멸적의 총창을 억세게 벼리는 천만군민이 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다.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은 선군의 기치높이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총대우에 사회주의의 승리도,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도 있다. 강력한 총대, 이것은 원쑤에 대한 증오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사랑으로 만장약된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이다.
혁명의 총대가 약화되고 흔들린다는것은 곧 계급의식이 희미해진다는것을 의미한다. 계급적자각이 없는 군인에게 쥐여진 총은 막대기보다 못한 법이다. 계급의식이 투철한 군대와 인민에게는 평화적기분에 사로잡혀 땅크와 포를 녹여 보습을 만들거나 원쑤들의 감언리설에 넘어가 총구를 내리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총대는 선군의 길에서만 강해질수 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선군은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이다. 우리 인민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오는 나날에 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총대로 결판을 내고야말겠다는 결사의 각오, 사랑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심장깊이 새기였다. 이런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였기에 우리의 천만군민은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자주적근위병의 영예를 높이 떨쳐올수 있었다.
선군의 보검으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은 억척불변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침략자들도 짓뭉개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 있다. 미제가 해마다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설쳐댈수록 미제에 대한 천만군민의 적개심과 보복열기는 더욱 치솟고 백두산총대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다. 미제가 한사코 우리 조국땅우에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대참패를 미국땅에서 맛보게 될것이며 세계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 평화의 교살자가 지구상에서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은 사회주의본태를 굳건히 고수해나가게 하는 사상정신적기초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섰다고 하여 저절로 사회주의의 넋과 숨결이 고동치는것은 아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본태는 높은 반제계급의식에 의해서만 지켜질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력사는 견결한 반제계급의식으로 사회주의본태를 고수하고 빛내여온 긍지높은 로정이다. 우리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리성》적인 제국주의, 《비사상화》를 떠들 때에도 사회주의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왔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이 자본주의의 물질적번영과 시장경제에 현혹될 때에도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자립의 터전을 튼튼히 다졌다. 많은 나라들이 《국적없는 문화》에 말려들어 춤을 출 때에도 우리의 멋, 우리의 향기로 사회주의화원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제국주의와 그 어떤 타협이나 양보를 모른 우리 인민의 투쟁을 떠나 약동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본태는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의 원천이다. 계급적각성이 높은 우리 인민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이색적인 사상문화와 생활풍조를 쓸어버리고 집단주의의 위력으로 만난을 헤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은 밥 한술 더 뜨겠다고 수십년간 지켜온 혁명적원칙, 사회주의본태를 저버릴 나약한 인민이 아니다. 사회주의본태를 더 활짝 꽃피워 자본주의를 모든 면에서 압도하고 세상이 보란듯이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이 우리 인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오늘 사회주의본태는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청년대군에 의하여 사소한 탈선을 모르고 굳건히 고수되고있다.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된 애국자, 혁명선배들과 동지들을 무한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결한 의리의 소유자, 주체성과 민족성을 제일로 여기고 백두산의 청신한 정기와 억센 기상으로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하고있는 시대의 선구자,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참모습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인 우리 나라는 혁명의 대가 꿋꿋이 이어지고 사회주의본태가 세차게 살아맥박치는 전도양양한 사회주의강국이다.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고 수령결사옹위, 총대중시, 사회주의원칙고수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김철학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선천군계급교양관에서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계급교양관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높은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계급교양관에서는 참관자들에게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미제가 선천땅에 기여들어 감행한 만행자료들과 애국자들이 발휘한 영웅적투쟁내용을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실감있게 해설해주고있다.
이와 함께 체험자들과의 이야기모임, 상봉모임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급교양을 심도있게 벌리고있다.
계급교양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은 새 자료들을 더 많이 발굴전시하는 사업과 함께 현장들에 나가 이동해설강의를 활발히 벌리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영농전투로 들끓고있는 군의 협동농장으로 달려나간 강사들은 작업의 쉴참에 선천군 인곡리에서 감행한 미제의 귀축같은 만행자료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미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이며 불구대천의 원쑤이라는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며 해설해주었다.
강사들의 해설을 들으며 농장원들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적개심으로 가슴끓이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켜나갈 결의를 다지였다.

로농통신원 차춘건

공동구호에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훌륭히 완공하라!

완공의 결승선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지휘관, 전투원들

모든 력량이 물길굴공사장에 집중되고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완공기일이 결정되게 될 여기 물길굴공사장에서 승리의 결승선을 향한 마지막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여 천만산악을 통채로 날려버려서라도 완공의 날을 기어이 앞당기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평양시와 황해남도, 평안남도와 남포시려단, 철도성려단과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자강도려단과 채취공업성려단의 전투원들이 물길굴전구간의 상부피복과 하부확장을 끝낸데 이어 총천한 기세로 하부피복공사도 기본적으로 해제끼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말은 적게 하여도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관철해내는 사람이 당의 사상을 신념화한 사람입니다.》

말그대로 마지막총돌격전이다. 지휘관, 전투원들모두가 자나깨나 이제 당창건 일흔돐까지 며칠 남았는가, 동무는 오늘 전투계획을 수행하였는가라는 량심의 물음앞에 스스로 자신을 내세운다.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는 항일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신념의 좌우명으로 쪼아박은 청천강용사들이 그날과제를 그날로 무조건 끝내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바라볼수 없다며 교대가 따로 없이 현장에서 불꽃튀는 판가리전투를 벌리고있다.

물길굴하부굴착과 피복공사를 립체적으로 다그치던 돌격대원들앞에 100여m구간의 버럭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가 나섰을 때였다. 갱의 통로가 거의 막힌 조건에서 많은 량의 버럭을 륜전기재들의 도움이 없이 그것도 짧은 기간에 처리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순간도 진격속도를 늦출수 없다.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비약의 대통로를 기어이 열어제끼자!

물길굴을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루빨리 드리고야말려는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 결사관철의 의지가 전투장마다에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대중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정치사업을 박력있게 벌리면서 현장 지휘부의 책임일군들부터가 대오의 앞장에 섰다.

황해남도려단과 철도성려단 전투원들이 붉은기를 펄펄 휘날리며 줄기찬 질풍전, 마대전으로 갱밖에 버럭산을 높이 쌓아나갔다. 평양시려단과 평안남도려단,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와 남포시려단 돌격대원들이 피복공사에서 쌓인 피로도 아랑곳없이 버럭운반에 합세해나섰다.

단 3시간만에 버럭운반전 승리적으로 결속! 이것은 단순한 공사실적이 아니다. 막아서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떳떳이 들어서려는 이곳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물길굴하부피복공사에 떨쳐나선 6개 단위의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은 세멘트와 골재를 가득 실은 대형화물자동차들을 통채로 막장안에 진입시키고 여러개의 전선을 타고앉아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치렬한 돌격전을 벌리였다.

함경남도려단과 청년결사대, 자강도려단과 채취공업성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 전투원들의 열의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비약과 혁신으로 충만되여있는 이들의 전투기록장을 보라.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수천m³에 달하는 조압수조타입공사를 다그쳐 끝낸 성과속에도, 긴 구간의 하부피복공사를 기어이 완수한 자강도려단의 실적에도 말로써가 아니라 자랑찬 실천으로 당을 받들어가는 이들의 헌신의 피와 땀이 진하게 스며있다.

취수구방향의 물길굴공사에 떨쳐나선 여러 단위 돌격대원들이 진격의 앞장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가고있다. 4개 경간의 구간에서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을 때도 이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동무들아 일떠서자, 분발하자! 경애하는 원수님께 결의다진 그날이 한초한초 다가온다. 신념의 맹세 목숨바쳐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청춘, 그런 생명 무엇에 필요하랴.

결사의 각오와 투지를 지닌 6개 단위의 전투원들이 폭약을 그러안고 적진에 날아드는 심정으로 막아서는 위험들과 부닥치는 버럭무지들을 송두리채 들어내며 전선시간과도 같은 결사전의 분과 초를 이어나갔다.

김만유병원에서 달려나온 한설경동무를 비롯한 현장치료대성원들도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세찬 격류마냥 수천척지하막장을 누비며 폭풍처 내달린 청천강용사들의 대오는 마침내 취수구방향 물길굴공사완공의 결승선을 돌파하고야말았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들으며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가다듬는 청천강용사들입니다. 우리들은 한몸 그대로 콩크리트로 굳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길굴을 훌륭히 완공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반드시 승리의 보고, 영광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양시려단 보통강구역대대 정치지도원 리광룡동무의 심정만이 아니다. 물길굴의 한치한치에 헌신의 구슬땀으로 자랑찬 위훈만을 아로새겨가는 전체 지휘관, 돌격대원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맹세이다.

완공의 결승선을 향하여 마지막총돌격 앞으로!

신념과 의지의 대결장인 물길굴공사장에 필승의 신심넘친 애국충정의 대오가 줄기차게 흐르는 속에 최후승리의 승전포성을 울릴 그날은 하루하루 눈앞에 더 빨리 다가오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

침수지역 이설대상공사 성과적으로 완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펼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와 당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뜨거운 충정이 하나로 되여 당과 인민대중의 협연의 뉴대가 새로운 높은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침수지역 이설대상들에 대한 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되였다.

청천강전역의 수백리구간에서 발전소건설과 함께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살림집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여 21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이 전부 끝나 새집들이를 진행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또한 수십km구간의 도로와 철길이설공사가 힘있게 다그쳐져 10여만m³에 달하는 굴착 및 성토과제가 수행되고 수만m²의 로반포장과 옹벽쌓기, 장석입히기, 여러개의 다리건설이 원만히 진행되였다.

이 성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공사장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침수지역 이설대상건설을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림철수동무를 비롯한 지휘부 일군들은 살림집과 도로, 다리건설과 철길보호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들이 청천강전역의 수백리구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현장들을 밟아보면서 모든 건설자들이 높은 공민적자각과 책임성을 안고 공사를 주인답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구장군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2개의 다리건설, 수km구간의 도로에 대한 옹벽쌓기와 장석입히기를 질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그 기세로 60여세대의 살림집건설도 전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이들은 여러달동안의 완강한 투쟁을 벌려 여러개의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갖춘 20세대의 살림집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일떠세운데 이어 다른 40여세대의 살림집건설도 질적으로 해제끼였다. 뿐만아니라 살림집들의 주변에 각종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꽃관목들을 심고 여러가지 민속놀이장들과 로라스케트장이 있는 종합휴식터까지 손색없이 꾸려놓았다.

개천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작업량이 많은 수십m길이의 다리건설을 와닥닥 해제끼고 30여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제기일에 끝내였다.

향산군에서는 수십세대의 살림집건설은 물론 수천m도로구간에 대한 로반성토와 장석입히기, 군민발전소주변의 큰물피해막이공사 등을 힘있게 내밀었다. 희천시에서는 공사량이 많은 1000여m길이의 도로성토 및 포장공사와 다리건설, 85세대의 살림집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어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혁신을 이룩하였다.

한편 평안북도도로건설려단의 전투원들은 큰 규모의 다리건설을 완강하게 내밀어 1년남짓한 기간에 완공하였다. 개천철도국아래 신의주, 정주, 강계철도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투원들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긴 구간의 철길보호공사들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주동적인 작전과 높은 공사실적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건설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능숙한 조직적수완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자기 단위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대상별로, 단계별로 불이 번쩍 나게 해제껴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당창건 일흔돐까지 훌륭히 완공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이 언제와 발전기실건설, 물고기길과 방수로공사를 모두 기한전에 앞당겨 끝내였다.

특히 설계상 다른 단위들과는 달리 언제우로 자동차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리보설치공사와 함께 방대한 량에 달하는 우안 및 좌안비일류부언제건설공사까지 질적으로 해제끼고 발전설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운영건물과 종업원살림집건설, 원림록화와 지대정리, 콩크리트포장을 비롯한 보조대상 및 마감정리과제들도 손색없이 수행하고 얼마전 외장제칠하기까지 말끔히 끝내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건설전투의 나날 언제나 혁신적인 안목을 지니고 공사작전과 지휘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진격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제낀 황해남도려단 지휘관들의 대담하고도 통이 큰 일본새를 떠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석철, 안영구, 리강선동무를 비롯한 이곳 지휘관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좋은 점은 공사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높은 책임감으로 일관된 주동적인 작전과 혁명적인 실천이다.

좌안비일류부언제의 속벽공사를 대표적인 실례로 들수 있다. 려단장 김석철동무는 당앞에 맹세다진 공사목표를 앞당겨 점령할 열의밑에 주동적으로 이미 추진중인 발전기실건설과 동시에 비일류부언제속벽공사를 립체적으로 벌릴것을 대담하게 결심하였다.

려단지휘관들이 현장을 타고앉아 기술자, 기능공들과 함께 새로운 암반구간을 찾고 혼석채취장들을 좌안쪽에 전개하며 수중다리건설을 적극 밀고나가면서 방대한 속벽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낄수 있는 토대를 하나하나 닦아나갔다. 이런 빈틈없는 작전과 사전준비가 있음으로 하여 려단은 발전기실공사를 다그치면서도 근 5000m³에 달하는 속벽콩크리트치기를 불과 한달동안에 빛나게 결속하였다.

공사의 주객관적요소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렬친 창발적이며 기동적인 작전도 려단일군들의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이다.

언제다리보설치공사에서 이들이 창조한 최고기록을 보자. 려단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언제수문권양기가동을 위한 다리보와 함께 자동차다리보까지 더 포함하여 미리 제작해놓고 기중기에 의한 단번설치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였다. 뿐만아니라 기존방식을 타파하고 언제전구간에서 조립식방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란간설치공사도 립체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갔다. 이곳 지휘관, 돌격대원들은 종전보다 조립시간을 근절반으로 단축하여 하루평균 8개의 다리보를 설치하는 새 기록을 창조하고 언제건설공사에서 통장훈을 부르고야말았다.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시공을 전문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으며 사회주의경쟁을 실속있게 조직하면서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과 앞선 공법들을 널리 창안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이곳 지휘관들의 작전과 지휘에서 따라배울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오늘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준공의 시각만을 기다리고있는 희천5호발전소의 자랑찬 현실은 이곳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작전을 주동적으로 펼치고 대담하게 실천해나간다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반드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수백리 청천강전역에 조선로동계급의 슬기와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발전설비들의 장쾌한 동음이 기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우리의 미더운 수력설비조립사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지난해말에 이미 희천7호발전소건설장에서 첫 발전설비시운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청천강을 보배강, 애국의 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적인 한페지를 뜻깊게 장식하였다.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을 모르는 이들은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빛나는 로력적선물을 마련할 일념안고 전투장마다에서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희천8호와 9호, 5호발전소건설장에서의 발전설비시운전을 련이어 훌륭히 보장한데 이어 희천4호와 6호, 10호발전소건설장에서도 발전기가동시험을 원만히 진행함으로써 완공의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하루빨리 휘날릴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 전개력과 투신력을 지니자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하다면 이렇듯 자랑찬 혁신의 비결은 무엇인가.

사실 한개 발전소도 아니고 근 10개 발전소의 발전설비조립을 통채로 맡아안고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진행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단위책임일군들이 어떤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전개하는가에 따라 공사성과가 크게 좌우지되는 법이다. 한길환, 리영주, 박명훈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은 제기된 과제를 놓고 할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사상적으로 달라붙었다.

우선 설비조립1, 2직장의 전투원들로 4개의 력량을 기동성있게 편성하고 일군들이 여러단위씩 맡고 현장들에 나가 설비조립을 완강하게 내밀기 위한 투쟁의 된바람을 일으키였다.

여기서 잘한것은 조립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공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전반적인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것이다.

모든 발전소건설장들에서 설비조립을 동시에 다그치기 위한 립체전도 두뇌전, 기술전의 방법으로 전개해나갔다.

일군들은 자체의 기술혁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해당 단위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였다. 특히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면서 수리기지들의 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각종 설비제작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도록 하는데 파녀들을 정하고 현행조립과제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해나갔다.

지난 기간 여러 수력발전소들을 완공하는데 적극 기여한 설비조립1직장과 설비조립2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조립공들은 각종 설비조립과제들을 제때에 손색없이 해제끼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여러가지 능률높은 설비들을 창안제작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하여 이동식산소발생기와 철판만곡기를 비롯한 각종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제작함으로써 단 3일동안에 맡겨진 회리실제작과제를 전부 끝내는 자랑을 떨치였다.

한몸이 그대로 화선의 기관차가 되여 이신작칙으로 대오를 앞장에서 이끌어나가는 투신력이 없이 일군의 자격을 말할수 없다.

한길환, 리영주, 박명훈동무를 비롯한 사업소의 일군들과 전력공업성 수력발전관리국에서 달려나온 김철호동무는 조립전투기간 수백리 청천강전역을 종횡무진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고 실속있는 대책들을 기동성있게 세워나갔다. 특히 희천4호와 6호, 10호발전소건설장에서의 설비조립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대줄기같은 비속을 뚫고 수십리길을 쉬임없이 오고갔으며 발전기가동시험의 나날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장악하고 즉시에 과학기술적인 대책들을 세움으로써 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발전설비조립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시운전들이 련이어 성과적으로 진행된 이 자랑찬 현실은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일군들처럼 완강한 전개력과 투신력을 지니고 대오의 앞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해나갈 때 눈부신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경험적으로 잘 말해주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희천8호발전소건설장에서—

새로 건조한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첫 출어

문덕수산사업소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문덕수산사업소에서 새로 건조한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가 첫 출어를 하였다.

얼마전 사업소의 앞바다는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처녀어로공들을 바래우기 위하여 손에손에 꽃다발과 꽃목걸이를 들고나온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거리였다. 붉은기들이 휘날리는 부두가의 방송선전차에서는 그들을 축하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였다.

평안남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이 첫 출어를 하는 처녀어로공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었다.

정각 9시, 출항을 알리는 신호에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가 배고동소리로 높이 화답하였다.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 가족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첫 출어를 하는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 처녀어로공들을 축하해주었다.

새로 무은 배를 타고 먼바다어장으로 향하는 처녀어로공들의 얼굴마다에는 사업소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처녀어로공들을 바래우는 림덕화, 박병일, 최일규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해마다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해온것처럼 올해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결의에 넘쳐있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지난 4월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를 철선으로 새로 건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두달만에 배무이를 끝내고 출항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새로 건조한 고기배는 601급 두통식개량안강망선으로서 뜨락작업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고기배이다. 고기배에는 방향탐지기, 대화기, 수심기 등이 갖추어져있다. 고기배에는 침실, 취사실, 식사칸,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 등 어로공들의 생활편의보장을 위한 모든 시설들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첫 출어를 20일이나 앞당겨 보장한 처녀어로공들은 지난 6월까지 년간 물고기생산계획을 끝내고 계속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차게 벌려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영광의 그날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선장 안경희동무와 《조선로동당의 딸—청년영웅녀성》호의 처녀어로공들은 현대적으로 장비된 고기배를 타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혁철

대중운동에서 중시한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문제

오석산화강석광산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오석산화강석광산이 최근시기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례없던 성과를 거두어 주목을 끌고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려진 여러동의 생산건물과 원림화, 수림화가 잘된 구내도 볼만 하지만 자체로 꾸려놓은 원석과 석재가공품생산기지에서 중요대상건설에 필요한 원석과 다양한 종류와 규격의 질좋은 석재를 쌍쌍 생산하고있는 모습을 보면 감탄을 금할수 없다. 이 성과는 초급당위원회가 대중운동을 광산의 비약적발전의 무기로 틀어쥐고 방법론있게 사업을 전개해온 결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행정경제일군들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자기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운동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초급당위원회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중시한것은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문제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관련하여 행정경제일군들이 내놓은 발기들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주었다. 실례를 보자.

생산공정의 현대화사업이 벌어지던 때였다. 지배인 창재룡동무가 초급당비서 리명걸동무를 찾아와 자행식대절기를 원석생산에 받아들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때 초급당일군은 놀랐다. 생산을 내밀면서 짧은 기간에 어려운 기술혁신안을 실현한다는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였기때문이였다. 그처럼 어려운 일감을 스스로 맡아안고 나서려는 지배인의 그 마음은 얼마나 소중한가.

초급당일군은 지배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렇게 되여 자체의 힘으로 자행식대절기를 원석생산에 받아들일데 대한 조항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되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행정경제일군들이 설계한 문제들이 결실을 보도록 당적으로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도 잘하였다.

공업용수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결의목표를 수행하던 때였다. 어느날 저수움파기공사장을 찾았던 초급당일군은 공사가 일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는것을 알게 되였다.

일부 일군들은 로력이 부족하기때문이라고 하였지만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였다. 저수움을 팠다가 혹시 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 하는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에 문제가 있었다.

종업원들과 무릎을 마주한 그는 저수움파기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광산을 현대적인 화강석가공기지로 꾸리기 위한 매우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지배인이 구령을 친대로 이 일대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반드시 물줄기를 찾아야 한다고, 자기도 함께 책임지겠다고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종업원들속에서 좋은 안들이 나왔다. 그리하여 10여일은 걸려야 한다던 저수움파기공사를 단 3일동안에 해제낌으로써 자행식대절기에 의한 원석생산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게 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실력문제는 그들의 기수적인 역할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의 실력문제를 결의목표실현에서 앞채를 메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밀고나갔다.

중시한것은 행정경제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학습을 정상화한것이다. 과학기술보급실에 콤퓨터를 비롯한 비품들을 갖추어놓고 기술성과자료를 전시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학습내용에 대한 인식정형을 매번 문답과 시험의 방법으로 총화하고 넘어가는 체계를 세운것은 일군들의 과학기술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도움이 되였다.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사업도 의도적으로 조직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게 하였다. 자행식대절기를 원석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벌리기에 앞서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로 어느 한 돌가공공장에 대한 참관사업을 조직한것도 그런 의도에서였다. 이런 과정에 일군들의 실력이 높아졌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경제일군들이 높은 실력을 소유함으로써 자체의 힘으로 박토처리와 광구능력확장공사를 벌려나갈 주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용의주도하게 해나갈수 있었다.

자행식대절기를 원석생산에 받아들이는 문제도 일군들의 높은 실력이 안받침된것으로 하여 원만히 실현되게 되였다.

원형란주기계도 기술부원 라성남동무가 이 분야에 대한 해박한 실력을 소유했기때문에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만들어낼수 있었다.

행정경제일군들의 이런 일본새는 온 광산에 대중적기술혁신열풍을 일으켰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능력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5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 도입됨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 사업을 비롯하여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전투력있는 단위로서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칠수 있었다.

초급당위원회는 후방사업과 광산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에서도 행정경제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나가도록 하였다.

누구나 감탄하는 로동자정양소, 광산한복판에 멋들어지게 건설한 로라스케트장, 공원, 실내물놀이장과 각종 유희시설을 그쯘하게 갖춘 유치원, 종합축사… 그 하나하나에는 대중운동의 직접적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결의목표실현에서 기수적역할을 다해온 광산행정경제일군들의 땀방울이 진하게 슴배여있다.

광산은 최근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상반년안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지난해 10월에는 5월1일경기장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당중앙위원회 감사문을 받아안았다. 얼마전에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오석산화강석광산 초급당위원회의 경험은 당조직들이 결의목표실현에서 행정경제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제 몫을 다하도록 키잡이를 잘할 때 그 어디서나 대중운동의 위력으로 단위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시련속에서 더욱 억세여진 인민의 신념

폭우와 큰물속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높이 발휘한 라선시안의 인민들

지난 8월 백년이래 처음 보는 폭우와 큰물이 우리 조국의 북변도시 라선시를 휩쓸었다. 특히 라선시 선봉지구가 당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재난이였다.

한주일째 내리던 비가 22일 저녁부터 시간당 100㎜이상의 폭우로 강화되면서 선봉지구 전역이 통채로 침수되였으며 평균 1m두터이의 감탕이 온 도시를 뒤덮었다.

수많은 집들이 침수되거나 완전히 무너지고 가슴아픈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큰물피해를 두고 라선시안의 인민들은 하나의 전쟁을 겪은 심정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말한것처럼 이번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과의 전쟁이였다.

바로 이러한 치렬한 전쟁의 격류속에서 라선시안의 인민들은 백전백승하는 우리 조국의 힘이 무엇이며 원자탄으로도 깨뜨릴수 없고 특대형재난속에서도 와해되지 않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어떤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인민의 무비의 정신력의 최고표현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있습니다.》

라선종합식료공장 로동자였던 엄송화동무가 예견되는 큰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안전하게 보위하기 위한 당원결사대가 조직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당위원회로 달려간것은 지난 8월 22일이였다.

《저는 당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시각에 뒤전에 물러선다면 제가 어떻게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저를 결사대에 받아주십시오.》

엄송화동무의 불같은 청원은 공장일군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배치받은지 불과 몇달 안되는 사이에 우리 식의 천연방부제를 연구개발하여 공장의 생산에 크게 이바지한 보배처녀, 언제나 말보다 실천이 앞서군 하던 청년동맹원에 대한 믿음이 그를 결사대에 받아들이도록 해주었다.

그날 저녁 엄송화동무는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는 로동자 박성옥동무와 함께 쏟아지는 폭우속을 헤치고 읍지구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바께쯔로 물을 퍼붓듯이 내리는 비속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서있는데 저녁 8시 40분경 다급한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웨침이 들려왔다.

《동뚝이 터졌다!》

순간 명주천을 찢는듯 한 파도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니 흙탕물이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삽시에 가슴에까지 차오르는 물속에서 허둥거리던 엄송화동무와 박성옥동무는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다.

산에서 뿌리채 뽑히여 떠밀려내려온 아름드리나무들이 세찬 물결을 타고 침수된 집들을 련이어 무너뜨리며 태양상모자이크벽화가 있는 방향으로 거침없이 쓸어내려오고있는것이 아닌가.

순간 엄송화동무는 어버이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한몸으로 막아나설듯이 두팔을 벌리며 소리쳤다.

《안된다. 안돼!》

주저없이 앞으로 맞받아나간 엄송화동무는 태양상모자이크벽화쪽으로 밀려드는 통나무들과 여러가지 물체들을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하였다.

자기를 따라나선 박성옥동무에게 엄송화동무는 자기의 맞은켠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성옥동무는 저쪽을 맡으세요. 부탁해요.》

엄송화동무가 가리킨 곳이 물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였으며 그때 그 목소리가 자기가 듣게 된 송화동무의 마지막목소리라는것을 박성옥동무가 알게 된것은 몇시간후였다.

엄송화동무가 큰물속에서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보위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을 때 선봉중현언덕혁명사적지, 선봉항혁명사적지를 비롯한 선봉지구안의 혁명사적지들에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사적지를 보위하기 위한 결사전이 벌어졌다. 선봉체신소, 선봉원림시설사업소, 선봉지구 하현동, 상현동, 송평동, 중현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물속에 잠겨 떠내려가는 자기 집을 뒤에 남기고 지구안의 혁명사적지들로 달려갔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져있는 선봉중현언덕혁명사적지에서는 지구당위원회일군들의 지휘하에 큰물과의 격전이 벌어졌다. 사적지가까이에서 흐르던 개울물이 삽시에 강물처럼 불어나 사적지구역안의 여러채 건물들이 위험에 처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마대를 등에 지고 사품치는 물결속에 뛰여들었다. 세찬 물결에 수십㎏짜리 모래마대도 종이장처럼 떠내려가 도저히 방수벽을 쌓을수가 없었다.

너무도 가혹한 자연의 격랑앞에서 어쩔바를 몰라할 때 지구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병삼동무가 소리쳤다.

《모래마대를 지고 일시에 달려나가자!》

그의 구령에 따라 3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래가 가득 담긴 마대를 지고 모여섰다.

산비탈을 타고 무섭게 사품쳐내리는 흙탕물, 맹렬한 기세로 굴러내리다 서로 부딪치며 아츠러운 굉음과 함께 퍼런 불꽃을 일으키는 바위돌들, 세찬 물결을 이겨내지 못한채 또다시 무너져내리는 살림집…

처참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여 혁명의 만년재보를 보위할 결사의 의지가 끓어넘치는데 심장에 불을 다는 웨침이 들려왔다.

《동무들! 앞으로!》

순간 300여명의 군중이 화답하며 내달렸다.

《나가자!》

모래마대를 지고 서로서로 의지한 사람들이 물속에 뛰여들었다.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 빨리 나가자라는 혁명가요를 심장으로 웨치며 사나운 격랑을 맞받아 일제히 내달렸다.

수백개의 모래마대가 일시에 한덩어리로 합쳐지자 방수벽을 쌓을수 있는 지지점이 생겼다. 지체없이 한쪽에서는 방수벽이 밀리지 않도록 온몸으로 견지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모래마대들을 끊임없이 날라오는 속에 드디여 사나운 기세로 덮쳐들던 물결이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격랑속에서 일분일초가 1년 맞잡이로 흐르는 속에 어느덧 비발이 약해지고 위험한 고비를 넘어섰다.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듯 동켠하늘이 밝아오며 선봉지구에 아침이 왔다.

비젖은 몸으로 피해현장을 돌아보던 라선시안의 책임일군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피해앞에 억장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허리를 치는 감탕을 헤치며 큰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너무도 놀랍고 심장이 통채로 끓어오르는 뜨거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급작스레 밀려든 큰물이여서 옷조차 변변히 입지 못하고 한지에 나앉은 인민들, 바로 그들 모두가 비젖은 가슴마다에 목숨처럼 안고있은것은 무엇이였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였다. 밤새껏 내리는 찬비에 온몸의 열기를 다 빼앗기면서도 수령님들의 초상화에 비물 한점 스며들세라 비닐로 싸고 또 싸고 한시라도 제몸에서 떨어질세라 끈으로 묶어 자기 몸에 동여맨 인민들!

한탄음에 탈려가 인민들의 손을 부여잡는 일군들의 눈가에서 뜨거운것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는 무사하다고 웃으며 말하는 인민들의 모습과 더불어 난생처음 당하는 자연의 광란속에서도 굴함없이, 주저없이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목숨으로 보위하고 희생된 인민들의 모습이 눈물속에 어려왔다.

그속에는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집안식구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부터 옮겨모시고 희생된 선봉지구 송평동 27인민반 천복순녀성도 있었으며 온 식솔이 감탕에 묻히는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와 당원증을 습기 한점 배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위한 백학동 8인민반 김은실녀성의 가정도 있었다.

사태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마지막순간에 자기를 향해 내뻗친 구원의 손길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맡기고 영영 사라진 사람은 또 그 얼마이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참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온 인민이기에, 수령결사옹위의 길에 인생의 영광이 있다는것을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아온 인민이기에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들모두가 한사람같이 안고나온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는 말그대로 인민자신의 생명이였다.

바로 온 나라 인민이 함께 걷는 수령결사옹위의 그 길에서 한목숨바쳐 영생의 삶을 지닌 참다운 인간전형들은 얼마나 많던가.

합치면 하늘의 별무리를 이룰 그 수많은 인간전형들의 대오속에 오늘은 라선종합식료공장 로동자였던 엄송화동무가 들어섰다.

키를 넘는 물속에서 기운이 진하는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보위하고 희생된 엄송화동무, 그의 나이는 25살이였다.

* *

강철은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인민은 시련속에서 강해진다.

폭우와 큰물로 혈육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것을 다 잃으면서도 단 하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만은 잃지 않고 목숨바쳐 지켜낸 라선시안의 인민들.

그토록 엄혹한 정세속에서, 그토록 가혹한 재난속에서 라선시안의 인민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은 천금을 주고도 바꿀수 없는 조선의 재부이며 국력이다.

시련이 겹쳐들수록 더더욱 수령의 품에 안기는 인민, 목숨은 잃을지언정 수령의 심장과 잇고 사는 운명의 피줄만은 끊지 않는 이런 강대한 인민이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키워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하늘처럼 내세워주시는 우리 인민이다.

이런 인민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이런 인민이 지키는 사회주의 내 조국은 필승불패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현지에서 전송)

불타는 도덕의리심의 발현 충정, 숭고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원한 태양의 성지로 더 훌륭히 꾸리며 언제나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날을 따라 더해만 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마음이 세차게 굽이치는 가운데 각지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충정을 바치는 소행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대성은행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훌륭히 꾸리는것은 혁명전사들의 응당한 본분이며 도리이라고 하면서 지난 7월 금수산태양궁전 관리사업에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레드등을 마련하여 보내준것을 비롯하여 지난 10여년간 많은 설비와 자재, 물자들을 지원하였다.

대성지도국에서는 지난 3년간 10여차에 걸쳐 잔디깎는기계, 다짐기, 정원등을 비롯한 많은 설비와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조선건축가동맹 평양시위원회 평양건축정보기술통보소 실장 오복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한 자신의 소행자료를 료해하시고 은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마음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뜨거운 충정을 바치였다.

평양시인민보안국 산하단위 인민보안원 김강호는 지난해부터 5차에 걸쳐 많은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금수산태양궁전을 더 잘 꾸리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하였다.

국가설계지도국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로동자 백순애는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불타는 마음을 안고 지난해부터 여러차에 걸쳐 관리도구들을 비롯한 많은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함경북도체신관리국 정보통신국 부원 김금순, 로동자 리청희는 2012년부터 10여차에 걸쳐 창성이깔나무 1000여그루, 회령백살구나무 100여그루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었다.

신의주교원대학 교수지도과 과장 방은주, 신의주의학전문학교 교원 백영순과 교장 리만섭은 여러해전부터 수차에 걸쳐 수종이 좋은 나무 수십그루를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내주어 원림록화에 이바지하였다.

금성정치대학 1학년 학생 한진향과 중구역 창전초급중학교 3학년 학생 정선영은 2012년부터 수십차에 걸쳐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충정의 결의를 다지고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넘겨주었다.

만경대구역 만경대소학교 2학년 학생 김윤경과 동대원구역 삼마소학교 3학년 학생 리미경은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부모들과 힘을 합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마련하여 해당 일군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밖에도 인민봉사총국 련못관 종업원들과 평양시무역관리국 운하정보기술교류사 로동자 방순희, 중앙은행 함경남도 함흥시 동흥산지점 로동자 주정림, 경흥지도국 조옥심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충정과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일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고 신선한 과일을 더 많이 먹이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념원과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분발해나선 동림과수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올해에도 많은 사과를 생산하여 군안의 주민들에게 공급하였다. 비결은 무엇인가.

잡도리를 잘해야 성과도 크다

동림과수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무슨 일이든지 잡도리부터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과일나무비배관리를 마음먹고 단단히 짜고들어 사과맛을 좋게 하면서도 생산량을 늘인 경우가 바로 그렇다.

비배관리를 조직하면서 일군들이 힘을 넣은것은 해염토를 리용하여 사과나무의 영양관리에 힘을 넣는것이였다. 사과맛과 정보당 수확고를 담보하는 근본방도의 하나였기때문이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것은 아니였다. 지난 시기에도 해마다 이 문제를 강조하였지만 주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작업조건에 빙자하면서 어쩔수 없는 일로 여긴 결과였다.

사실 작업반마다에는 주변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와 여러가지 화학비료가 있어 그것만 가지고도 비배관리를 얼마든지 할수 있었다. 그리고 해염토를 쓰자면 바다가에 가서 수백t을 실어와야 하므로 품이 많이 들었던것이다. 그렇다고 쉬운 길을 택하면 사과나무마다 미량원소를 충분히 보충해주지 못하여 사과생산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칠수 있었다.

지배인 홍경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해염토의 리용을 단순히 과일나무밑거름주기가 아니라 과수농장들사이 경쟁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생산열의를 북돋아주며 과일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당정책관철문제로 보고 혁신적인 방도를 모색하였다.

일군들은 해염토수송을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력량편성을 합리적으로 치밀하게 하면서 300여t을 밑거름으로 리용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군책임일군들과 긴밀한 련계밑에 지난해 가을부터 집중수송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해염토가 충분히 확보되자 일군들은 모두가 바삐 뛸수 있게 작업반별과제를 정확히 분담한 후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총화하고 재포치하면서 그것을 적극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내밀었다.

이때 일군들은 갓 운반해놓은 해염토는 과일나무가 미량원소를 흡수할수 없는 감량으로 되여있고 그대로 쓰면 염피해를 줄수 있다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이듬해 봄까지 과일나무밑에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놓아 풍화되게 한 다음 쓰도록 하였다.

또한 밑거름주기도 방법론있게 조직하였다. 종전에는 골을 째고 묻어주는 방법으로 하였는데 이렇게 하면 뿌리전반에 줄수 없었다. 그래서 3월초에 풍화된 해염토를 과일나무주변에 뿌리고 흙을 덮어주는 방법과 배합하도록 하였다.

무슨 일을 하든지 크게 잡도리를 하고 일판을 벌리면 성수가 나기마련인것이다.

구체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작업반초급일군들인 리건호, 김상옥동무들이 영농작업의 기계화실현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결과 병해충이 발생하기 전에 적은 로력으로 약뿌리기를 방법론있게 내밀어 그 효과성을 높일수 있었다.

올해 청년작업반에서 사과맛을 좋게 하면서도 정보당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0%이상 높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모두가 말하고있다.

현실은 잡도리를 잘하여 지대적특성에 맞는 영농방법들을 적극 찾아쥐고 내밀면 어디서나 맛좋은 사과의 생산량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제8차 평양악기전시회 진행

제8차 평양악기전시회가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시회에는 당의 문예정책을 높이 받들고 전문악기생산단위들과 예술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창안한 50여종에 1400여점의 악기들과 부분품, 소모품, 악기제작을 위한 지구와 공구들이 출품되였다.

우리 인민의 정서와 미감,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유한 음색과 독특한 모양 등을 잘 살린 어은금, 가야금, 장고를 비롯한 민족악기들과 바얀, 비올라, 손풍금, 피아노 등의 현악기와 관악기들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악기생산과 관련한 국내외기술자료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출품한 악기들도 관심을 끌었다.

전시회기간 악기제작을 위한 기구, 설비, 재료를 현대화, 국산화하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경험발표회, 과학기술통보, 민족악기연주회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전시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나라의 악기공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악기연구와 제작, 생산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폐막식이 18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있었다.

김덕훈내각부총리와 박춘남문화상, 관계부문과 출품단위의 일군들, 연구사, 교원, 학생들, 이번 전시회에 악기들을 출품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출품자들에게 상장과 증서가 수여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의도대로 세계적수준의 질좋은 악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 우리 나라 악기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예술선동대가 18일 평양에서 공연의 첫막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여주신 예술선동대의 공연을 보러 온 관람자들로 청년공원야외극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설화와 합창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은 처음부터 관중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고 영광의 10월 백두대지에 불야경을 기어이 펼쳐놓을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온 청년돌격대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영웅적투쟁모습을 감명깊게 펼쳐보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혼성2중창 《금방석》, 3인시 《사랑과 위훈》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령도를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청년강국의 주인들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열화같은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백두의 칼바람에 돛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처 내달리는 위대한 **김정은**시대 청년들의 영웅적기상이 그대로 맥박치는 무대에 기타5병창 《조국도 빛나리 청춘도 빛나리》, 손풍금3병창 《우리의 래일이 말해줄거야》 등의 종목들이 련이어 펼쳐져 온 장내를 청춘의 기백과 불타는 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극이야기 《백두청춘대학성적증》, 선동시 《백두전역엔 복수자인 새 세대 우리가 서있다》, 하모니카와 북제창 《밀림속의 승전가》 등의 종목들도 우리 당이 키워낸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형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냈다.

공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우리 당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군대와 인민, 청년들의 신념의 맹세가 넘쳐나는 시와 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로 끝났다.

백두청춘들의 억센 신념이 만장약되고 무한한 생기와 활력으로 천만군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 기동예술선동대공연

평양에서 진행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여러곳 참관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죠니 혼이 18일 문수물놀이장을 참관하였다.

공동리사장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미래관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문수물놀이장이 종합적인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진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실내물놀이장 등을 돌아보았다.

그는 감상록에 물놀이장의 그 어디에나 인민의 기쁨,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물놀이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하게 건설한데 대하여 감탄한다고 썼다.

이날 손님은 미림승마구락부와 메아리사격관을 참관하였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문수물놀이장 참관

로씨야에 갔던 인민보안부대표단 귀국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제2차 세계소방 및 구조연단에 참가하였던 리성철참사를 단장으로 하는 인민보안부대표단이 1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인민보안부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마중하였다.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일행 도착

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 영국 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과 일행이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영국레이버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일행 도착

동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 도착

동아시아축구련맹 제46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장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이 1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서기장 김정만이 맞이하였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에서는 동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동아시아축구련맹대표단 도착

먄마외무성대표단 귀국

란 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먄마외무성대표단이 18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강냉이가을을 와닥닥 끝내자

최대소출을 내다보고 작전할 때

개천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개천시의 협동농장들에서 강냉이가을걷이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내고있다. 이 성과는 당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최대소출을 내다보며 강냉이가을걷이작전과 실천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화선지휘관들답게 해나간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본새가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올해 시에서는 기본면적의 강냉이가을걷이를 지난해보다 닷새정도 늦게 시작하면서도 종전과 같은 때에 마감짓기로 하였다. 이것은 례년과 다른 올해의 불리한 농사조건에서도 잘 여문 낟알들을 허실없이 거두어들일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대책이였다.

그런데 난문제가 있었다. 기후조건과 함께 물, 비료보장조건이 각이한것으로 하여 강냉이이삭들이 여문 정도가 농장마다 달랐고 같은 포전안에서도 농장원들이 담당한 면적에 따라 서로 차이났던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지난해처럼 한정보의 포전을 단위로 하여 강냉이가을걷이를 진행한다면 채 여물지 못한 낟알들을 수확할수 있었다. 그렇다고 정해진 포전의 강냉이이삭이 모두 여물기를 기다린다면 계획한 날자까지 가을걷이를 결속할수 없었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맥을 놓으면 동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주저앉는다. 그렇다면 뚫고나갈 방도는 무엇인가.

일군들은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계기는 주동적으로 성숙시켜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다시금 되새겨보며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 과정에 이들은 두가지 결론을 내릴수 있었다. 하나는 매 농장원들이 담당한 포전들에서의 여문률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데 기초하여 가을걷이순차를 정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분조의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해제끼는것이였다.

이것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자체실정에 맞게 옳게 적용하여 온이 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의 진수를 파악하고 내린 승산이 확고한 전투방안이였다.

결심이 확고해진 일군들은 즉시 해당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각 농장들에서는 매 농장원들이 담당한 포전들에서의 여문 정도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을걷이순차를 바로 정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활기있게 진행해나갔다. 또한 가을걷이를 진행할 포전들에 분조의 로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작전도 동시에 펼치였다.

결국 전투시작부터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강냉이가을걷이를 열흘동안에 결속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의 화선지휘관들답게 전투현장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즉시에 예견성있는 대책을 세워나간것도 긍정할만 한것이다.

올해에도 시에서는 가을걷이를 앞두고 각 농장들에서의 탈곡기수리정비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졌다. 하지만 지난 시기와 다른 점이 있다. 즉 종전에는 이 사업이 탈곡기들의 시간당 작업능률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되였다면 올해에는 그와 함께 가능한 동력원천을 모조리 탐구동원하여 불의의 정황속에서도 낟알털기를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벌어진것이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봉화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의 보여주기사업이 낟알털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우쳐주는것과 함께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전시생산을 보장한 군자리로동계급의 투쟁정신이 가을걷이전투에서도 높이 발휘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결과는 좋았다. 보여주기사업이 있은 후 모든 농장들에서는 발동발전기와 뜨락또르를 비롯한 여러가지 동력원천들을 빠짐없이 찾아 리용하여 임의의 정황에서도 탈곡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나날이 높아지는 가을걷이실적에 낟알털기속도를 적극 따라세울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였다.

일군들은 공정간 작업조직과 맞물림을 책임적으로 하여 모든 농장원들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일단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탈곡장들에는 강냉이이삭들을 실은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서게 된다. 때문에 탈곡장들에서 낟알처리를 신속히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전반적인 가을걷이속도가 좌우되게 된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모든 농장들에서 보조타격방향의 력량편성과 작업조직을 면밀히 짜고들어 주타격방향에서의 높은 공격속도가 가을걷이전투의 전기간에 계속 유지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그리하여 강냉이가을걷이와 관련한 모든 공정별작업들이 치차처럼 맞물리고 탈곡장에 운반해온 낟알들이 보다 신속정확히 계량처리되여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그뿐이 아니다. 애써 지은 낟알의 부패변질을 미리막을수 있도록 겉마른 강냉이이삭들의 수확과 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간것도, 포전머리마다 일정한 크기의 구뎅이를 만들어놓고 가을걷이기간에 다음해농사에 리용할 유기질비료생산을 동시에 내밀수 있도록 작전하고 실천한것도 다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이며 혁신적인 사업기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전투정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과 실천을 과학적으로, 혁신적으로 따라세워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시사적이다.

본사기자 김성일

9월의 하루

◇ 사회주의협동벌이 용암마냥 끓고있다.

당이 그어준 진격의 화살표따라 승리의 결승선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농업전선의 벅찬 숨결이 어디서나 들려오고있다.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 애국의 마음안고 매일 강냉이가을걷이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그 어느 협동벌들에 가보아도 농업근로자들의 벅찬 숨결을 느낄수 있다.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농장들에서는 《오늘의 하루하루에 올해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옳은 말이다.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농장, 작업반들의 경험은 가을철의 하루, 한시간을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살며 투쟁할 때 풍년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 9월의 하루하루는 10월의 대축전장과 잇닿아있는 귀중한 시간이다.

가을걷이전투의 매일, 매 시각을 혁신으로 수놓아갈 때 승리의 축포성으로 10월의 명절을 빛내일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일수록 필승의 신념과 비상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합니다.》

10월의 명절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기간에 대축전장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온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충정이 검증되게 된다. 모내기와 비배관리를 비롯한 모든 농사일을 적기에 해왔다고 해도 가을걷이를 빨리 질적으로 끝내지 못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애국과 충정에 대하여 말할 권리가 없다.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맞잡이로 여기고 시간을 주름잡아 폭풍쳐 내달려야 한다.

가을걷이전투에서 일군들이 서야 할 위치는 공격전에 나선 대오의 맨 앞자리이다.

도, 시, 군, 농장일군들은 올해농사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가을걷이전투에서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폭발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강도높이 벌리고 작전도 지휘도 포전에서 전투적으로 하여 협동벌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총들격전에서 당과 국가앞에 자기 단위를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면서 분초를 아껴 뛰고 또 뛰여야 한다.

경쟁속에서 혁신이 일어난다. 농장, 작업반, 분조간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애국열의를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가을걷이전투성과여부는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에게 달려있다. 가을걷이전투에서 당에 대한 자기의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하겠다는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떨쳐나 일분일초를 값높은 위훈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걷어들여야 한다.

우리 당과 조국이 협동벌을 지켜보고있고 년대기마다에 위훈을 새겨온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주고있다. 10월의 대축전장이 가을걷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한 농업근로자들을 기다리고있다.

애국으로 가슴을 끓이는 이 나라 협동벌의 농업근로자들이여, 더 많은 땀을 흘리는것으로 승리의 결승선에 땟땟이 들어서자!

평산군 청학협동농장에서

운반에서 얻은 실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며 현행계획과 전망적인 단계별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대로 완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평산군 청학협동농장에서 강냉이가을걷이실적을 1.5배로 높이고있다.

비결은 강냉이단묶기에 칡을 리용한데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장에서는 새끼줄을 리용하였었다. 사실 농장은 밭이 대부분이여서 단묶기에 필요한 새끼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러다나니 단을 묶어 작업반으로 실어들인 후 그것을 다시 회수리용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때문에 운반도중 새끼줄이 끊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군 하였다.

결국 강냉이단을 나르는 륜전기재들의 머무름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하여 가을걷이적기를 보장하는데서 적지 않은 애를 먹었었다.

그러나 칡을 리용하니 이런 현상을 막을수 있었다. 그것은 종전의 새끼줄보다 더 든든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끼줄 한뚱구리와 맞먹는 칡으로는 2배이상의 단을 묶을수 있다.

이곳 일군들이 칡을 강냉이단묶기에 리용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올해의 불리한 일기상태로 강냉이와 벼가을이 겹칠수 있는 조건에서 강냉이가을걷이를 지난 시기보다 빨리 끝내야 하였다. 방도는 무엇인가.

당에서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것을 요구하고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비를 꼭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결심한 관리위원장 손일남동무는 일군들, 농장원들의 지혜를 합쳐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맞게 로력조직을 짜고들며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적재량을 더 늘여 가을걷이실적을 올릴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냈다.

예비는 찾을수록 나왔다. 신심을 가진 관리위원장은 깊이 사색하는 과정에 제3작업반의 탈곡장에서 강냉이창자보수에 칡을 리용한 사실을 생각해냈다.

순간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칡으로 창자보수를 한다면 단묶기도 할수 있지 않겠는가. 기발한 착상이였다.

일군들모두가 적극 지지해나섰다. 그들은 작업반을 맡고 내려가 강냉이단묶기속도이자 가을걷이속도라는것을 농장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칡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불러일으켰다.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의 농사결속을 성과적으로 하여 애국농민의 본분을 다할 불타는 열의 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일군들이 투쟁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이와 함께 총화와 평가사업을 실속있게 하는데 관심을 돌렸다.

이러한 조직사업은 응당한 결실을 가져왔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단묶기에 필요한 칡이 확보된것이였다.

이것은 그대로 강냉이가을걷이실적으로 이어졌다.

강냉이단묶기속도를 높여 가을걷이적기를 보장하면서도 집짐승먹이문제까지 해결되니 이것이야말로 일거량득이라고 할수 있다.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가을걷이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이곳 일군들처럼 일해나갈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지 않겠는가.

본사기자 주창일

적기선정에 예비가 있다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을걷이는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악군 룡산협동농장에서 강냉이가을걷이가 시작되던 날이였다.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던 일군은 제11작업반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이 포전머리에서 오사리를 벗긴 강냉이이삭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것이였다.

알고보니 강냉이이삭을 여러측면에서 관찰해보고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선정하는 문제를 토의하고있었다. 즉 강냉이오사리를 벗기고 수염이 마른 정도와 알의 윤기 등에 기초하여 포전별에 따르는 가을걷이일정계획을 세우는것이였다.

이 사실을 놓고 농장일군은 생각되는것이 있었다. 당의 농업정책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적기보장이다. 가을걷이도 례외로 될수 없다.

가을걷이적기선정을 과학적으로 하는 작업반과 오사리색갈을 보고 눈짐작으로 하는 작업반, 그것은 뜻깊은 올해를 알곡생산성과로 빛내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드는 일군들의 관점과 자세가 어떤가 하는것을 보여주는것이였다.

농장에서는 즉시 이 작업반의 경험을 모든 작업반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작업반들에 나간 농장일군들은 가을걷이적기선정을 과학적으로 하는데 3~5%의 알곡예비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력점을 찍어 강조하였다.

강냉이는 품종과 지력, 자연기후조건 등에 따라 여무는 기일이 짧아질수도 길어질수도 있다. 특히 올해는 류달리 가물이 심하였다. 하지만 8월에 비가 내린 후부터 가을날씨가 좋은것으로 하여 강냉이여문률이 계속 높아지는 포전들이 있다. 그러므로 강냉이오사리를 벗겨보고 그안의 수염이 말랐을 때 가을해야 한다. 다음은 강냉이이삭 끝부분의 알을 보고 잘 여물어 윤기가 나는 포전부터 가을해야 한다. 그리고 이삭에서 강냉이알을 뜯어보고 가을걷이적기를 선정할수도 있다. …

모든 작업반들에서 강냉이가을걷이적기선정을 과학적으로 하고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특히 제8, 12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포전별에 따르는 가을걷이적기를 바로 정하고 일정계획을 명백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그날과제는 그날로 수행하였다. 따라서 강냉이여문률이 더욱 높아져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였다.

본사기자 김창길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가을걷이에서 중요한것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는것이다. 그래야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전투에 진입한 은률군 은혜협동농장 일군들은 우선 낟알운반에 구력을 많이 리용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지난해 강냉이가을걷이과정을 분석하면서 구력이 많으면 운반수단에 강냉이이삭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수 있다는 묘리를 찾았다.

강냉이이삭을 미리 구력에 담아놓았다가 운반수단이 도착하면 한꺼번에 실을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구력이 적어 운반수단이 도착한 다음에 강냉이이삭을 담아 실을 때보다 운반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었다.

일군들은 가을걷이전투를 앞두고 분조마다 100개이상의 구력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운반작업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 지난 시기에 비하여 작업속도가 1.5배이상 높아졌던것이다.

일군들은 이에 맞게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농장원들은 뜻깊은 올해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밑에 가을걷이전투장마다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황철민

가을걷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경원군 농포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어린이들의 자랑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가입 25돐과 우리 나라와 유엔아동기금사이의 협조 30돐에 즈음하여 어린이들의 자랑모임이 17일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성, 중앙기관, 출판보도기관 일군들, 금성제1중학교, 중구역 창전소학교 등 평양시내 여러 학교의 교원, 학생들과 주조 유엔아동기금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행사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발언자들은 어린이들에 관한 사회적태도와 나라들의 법률을 변화시키고 어린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해결책을 밝히며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목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이 창건 첫날부터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미래중시, 아동중시정책을 일관하게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행사에서는 학생소년들의 예술공연이 있었다.

출연자들은 민족기악합주 《제일 좋은 내 나라》, 독무 《물동이춤》,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기둥감으로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행복한 모습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이어 모임참가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는 《나의 희망, 나의 자랑》주제의 글 및 그림, 수예작품들을 돌아보았으며 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을 참관하였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다음주에 여러 종목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된다.

20일(일요일) 오전에 대성산체육단, 평양철도국체육단 선수들이 참가하는 빙상호케이남자 1급 기술혁신경기가 빙상관에서, 청년선수권대회 마라손남, 녀경기가 광복거리에서 벌어진다.

청년선수권대회 야구경기가 20일부터 남포시에서, 력기경기가 22일부터 중앙체육학원에서, 교예체조경기가 24일부터 상업성체육단에서 있게 된다.

한편 20일부터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1급 남자경기가 5월1일경기장에서 시작된다.

이번 경기에는 12개의 남자축구팀들이 참가한다.

경기는 전련맹전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음주에 진행될 축구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20일 봉화산:4.25
압록강:월미도
21일 기관차:홰불
리명수:경공업성
22일 선봉:소백수
묘향산:초병
23일 봉화산:월미도
4.25:홰불
24일 압록강:경공업성
기관차:소백수
25일 리명수:초병
선봉:묘향산
26일 봉화산:홰불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이 떠나갔다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죠니 혼이 18일 평양을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 리사장 김창룡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탄광마을로인들의 광명을 찾아준 고마운 사람들

덕천시 제2인민병원에서

덕천지구의 여러 탄광마을에서 사는 10여명의 로인들이 지난봄 덕천시 제2인민병원 의료일군들에 의해 광명을 찾은 소식은 지금도 시안의 많은 사람들속에서 화제거리가 되고있다. 앞을 보지 못해 집문턱도 벗어나지 못하던 로인들이 수십리 먼길을 기운차게 걸어다닌다는 이야기도 그러했지만 그들을 치료해준 의료일군들의 소행은 들을수록 감동적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환자에 대한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의 집중적표현입니다.》

지난 3월 한쪽눈이 실명된 남양탄광마을 로인들에게 광명을 안겨준데 이어 덕천탄광마을을 다녀온 덕천시 제2인민병원 의사 김정철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료해해보니 그 지구에 두눈을 잘 보지 못하는 로인들이 여러명 되였다. 이제는 나이가 퍼그나 들어 수술적응시기를 놓친 그들에 대한 치료를 잘못하는 경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시간가는줄 모르고 밤늦도록 생각에 잠겨있던 김정철동무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지난 2월말에 있은 일이 떠올랐다.

그날 병원의 안과의료일군들에 의해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한 한 녀인은 자기가 사는 탄광마을의 로인들도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 정말 좋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현재 겪고있는 애로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수십년세월 나라의 주요탄전에서 피와 땀을 깡그리 바쳐 받들어온 사랑하는 조국이 날을 따라 변모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속에 여생을 보내고있을 로인들의 모습이 가슴아프게 어려와 김정철동무는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같아서는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었지만 담당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자고 해도 아름차 그는 며칠째 선듯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김정철동무는 병원의 일군을 만났다.

그에게서 찾아온 사연을 들은 일군은 탄광마을주민들의 안과검진 및 치료조직사업을 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 일은 걱정말고 래일 당장 떠나십시오.》

그렇게 떠난 이동치료의 길이였다. 그동안 리주훈, 박형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병원전반사업을 돌보는 바쁜 속에서도 담당지역 주민들의 안과질환치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김정철동무는 덕천탄광마을 로인들의 병명을 적은 수첩을 다시금 끄당겨펼치며 한사람 또 한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였다.

애지중지 키워온 세 딸모두를 최전연초소에서 복무한 제대군인들에게 시집보낸 장상동에서 사는 리영옥녀성과 30여년세월을 탄광마을자녀들의 교육사업에 묵묵히 바쳐온 장상동의 김광수로인…

김정철동무는 티없이 소중한 마음을 한생토록 지니고 산 로인들의 눈치료를 위한 이렇다할 방도를 오래도록 내놓지 못하고있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문득 병원의 일군이 집에 들어서자 그는 깊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 무엇인가 읽은듯 일군은 조용히 물었다.

《수술이 자신이 없는 모양이지요.》

《워낙 힘든 수술이다나니… 담당주민들도 아닌 환자들의 눈치료를 굳이 맡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셈입니까.》

《전 담당주민과 담당주민이 아닌 사람들을 따로 정해놓고 치료사업에 힘하는것은 참된 보건일군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정철동무의 말을 이윽히 듣고난 일군은 그날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병을 만난 사람이면 그가 어디서 사는 누구이든 시급히 대책을 세워주는것이 의사이고 환자를 대하는 보건일군의 관점과 태도는 실력에 앞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직결된 문제라는데 대하여 전세대 의료집단이 발휘한 소행과 더불어 들려주는 일군의 추억담은 김정철동무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병원의료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속에 새로운 결심을 안고 또다시 덕천탄광마을로 떠난 김정철동무는 여러명의 로인들에 대한 수술을 대담하게 진행하여 모두 성공하였다.

5년 남짓한 나날 거의나 앞을 보지 못하던 리영옥, 김광수로인을 비롯한 덕천탄광마을의 로인들은 꿈과 같이 광명을 찾고나서 격정에 젖어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더는 어쩔수 없는것으로만 생각했던 저희들이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뵙고 또 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앞을 잘 보지 못하던 저희들이 지금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있습니다.》

그날 리영옥녀성과 그의 자식들은 집집승을 많이 길러 탄부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마음속맹세를 굳게 다지였다. 그리고 덕천탄광에서 탄부로 일하는 김광수로인의 아들은 늦은 밤막장에 들어가 석탄증산투쟁의 앞장에 섰다.

한두명도 아닌 여러명의 탄광마을로인들의 눈을 기적적으로 띄워준 덕천시 제2인민병원 의사 김정철동무는 그후 형봉탄광마을로 지체없이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병원의료일군들과의 긴밀한 협조밑에 주민들에 대한 안과검진을 일일이 진행하고나서 또 한명의 로인에게 광명을 안겨주어 탄부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 탄광마을들을 찾아다니며 어려운 수술을 진행하여 10여명의 로인들에게 광명을 안겨준 덕천시 제2인민병원 의료일군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새겨안게 되는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 의료일군들이 지닌 임무는 해당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써 말할수 있다는것이다.

자기를 깡그리 바쳐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이런 진실하고 헌신적인 의료일군들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보건제도가 더욱 빛을 뿌리고 이 땅 그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퍼지는것이다.

본사기자 방경찬

진정한 인민의 나라,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해외동포들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뜻깊게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들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료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성원들이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를 가지였다.

행사에는 중국 심양주재 우리 나라 부총령사와 총령사관 일군들, 길림육문중학교 관계자들, 중국 장춘과 길림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나라 지사성원들, 길림시에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는 6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백경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재중조선공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9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연길시지부, 훈춘시지부, 왕청현지부에서도 경축모임들이 있었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시고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선군으로 승리하며 위용떨치는 불패의 백두산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백두산절세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들은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곳에서 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목단강지구협회 계서시지부, 녕안시지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해림시지부 등에서도 공화국창건 67돐 경축모임들이 진행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에 즈음하여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가 1일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국의 발전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행사에는 주영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과 협회일군들,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림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주영일회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으며 오늘 공화국의 위상은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우리 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조국의 밝은 앞날에 대하여 확신하고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의 힘을 당할수 없으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최근 전쟁접경에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공화국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하여 평정되고 북남판계개선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된것은 동포들에게 큰 힘을 주고있다.

우리 동포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더 힘차게 떨쳐나설것이다.

이어 참가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날 동포예술인들의 경축공연이 있었다.

또한 재우즈베끼스딴동포들은 9일 우즈베끼스딴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석명손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주영일 우즈베끼스딴 조선문화전통 《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고통련 일군들,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동포들은 대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영화 《일심단결로 승리떨쳐온 내 조국》을 감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핵공포증에 걸린 약자의 허장성세

얼마전 부쉬행정부시기 국무장관을 지낸바 있는 포웰이 어느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라 등이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은 자살행위로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하였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자리에도 앉아보고 국무장관노릇도 해보면서 적지 않은 세월 대조선정책작성과 실행에 관여하였다고 하는 포웰의 이 언동을 보면 그의 정치적, 군사적식견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알만 하다. 점잖게 말한다면 무지하고 몽매하다.

물론 관직을 다 내놓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있는 그가 주책이 없는 언동을 경망스럽게 일삼을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핵보유목적을 함부로 오도하여 제멋대로 시비질하며 여론화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다.

수차 강조하였지만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무모한 핵위협공갈에 대응한 자위적결단이다. 우리는 핵보유를 통해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횡포한 악의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민족의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의 보검이다.

우리의 핵무기사용여부에 대해 구태여 언급한다면 그 모든것은 미국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우리는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전쟁은 핵전쟁으로 될것이며 미본토에 둥지를 튼 침략의 아성과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모든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은 이미 우리의 첫째가는 타격목표로 되여있다는것을 강력히 경고한바 있다.

그 경고에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우리 공화국의 립장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예측할수도 상상할수도 없으리만큼 질량적으로 장성강화되였다. 따라서 일단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입게 될 핵참화도 상상을 초월하는것으로 될것이다. 우리 나라는 미국이 몰아올 핵전쟁에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놓았다. 군사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해왔다는 포웰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빈틈없이 갖추어온 이 준비상태에 대하여 결코 모르지는 않을것이다.

미지배층이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니 뭐니 하면서 본토방위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고있지만 미싸일방위체계를 연구하고있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어떤 요격미싸일로도 불규칙적인 비행을 하며 기만탄두까지 사용하는 우리의 탄도미싸일을 명중시키지 못할것이라고 비평하고있다. 결국 미본토는 우리의 핵타격에 무방비상태에 있는것이나 다를바 없다는 뜻이다.

포웰이 망탕 내뱉은 자살이란 말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 해당한 소리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곧 자멸을 선택하는것으로 될것이다.

포웰의 언동은 핵공포증에 걸린 약자의 허장성세이다.

지금 미지배층은 날로 강화되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하여 핵공포증에 걸려있으며 안절부절 못해하고있다.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이 불면증에 걸린 환자처럼 조선때문에 때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며 비명을 지른것만 놓고서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파연 조선의 핵타격력이 어느 정도인가? 미국이 군사적도발을 하는 경우 조선이 선제적으로 미본토에 무자비한 핵타격을 가하지 않겠는가?

미지배층은 이에 대해 접치면서 골머리를 싸쥐고 전전긍긍하고있다. 이 분위기를 타고 포웰이 제딴의 연구를 해본 끝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북조선이 자살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는 어리석은 결론을 내렸던것이다. 아마 미국이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보복할수 있으니 조선이 감히 미본토에 핵타격을 가하지 못할것이라는 의미이다.

핵만능주의, 수적우세론에 뼈속까지 물젖은 미국식사고방식의 발로이다. 포웰의 그 주장이 핵공포증에 걸린 미지배층에게는 진정제가 되고 군부호전광들에게는 흥분제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미지배층과 군부호전광들은 망녕이 든 한 늙은이의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며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오랜 기간의 조미대결전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로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미국은 잘 알것이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꿈에서 깨여나 이제라도 한시바삐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그것만이 핵공포증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리 경 수

반민족적이며 천만부당한 《북인권법》 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담화

지금 우리 공화국의 법률가들은 남조선《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북인권법》조작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여야정객들과 보수패당이 벌리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전면부정하는 정치적도발이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지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행위이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법과 정의를 짓밟고 북남관계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공화국의 전체 법률가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인류력사에 국가의 출현과 함께 법이 발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법들이 생겨났지만 남조선위정자들이 조작하려는 《북인권법》과 같이 동족간에 반목과 질시,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는 그런 법 아닌 《법》은 일찌기 없었다.

《북인권법》이라는것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법일뿐아니라 법제정의 초보적인 요구와 원칙마저 무시하고있는 불법무법의 극치이다.

애초에 남조선《국회》가 주제넘게 《북인권문제》를 론하는 자체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내정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자주권존중원칙에도 엄중히 위반되는 행위이다.

더우기 어떤 법을 제정하려면 법제정의 통기와 근거가 명확하고 정당성과 합법칙성이 부여되여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국회》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은 무근거한 자료와 허위증언, 날조와 모략으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훼손시켜보려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남조선시정배들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민족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빛나고 인민이 만복을 누리는 우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남조선의 정객들은 푼수없는 입방아질을 하기 전에 세계최악의 인권페허지대인 제 집안꼴이나 바로잡는것이 좋을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되고있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장한다고 하여 파쑈악법인 《보안법》의 칼날에 맞아 합법적인 정당과 언론들이 강제해산, 강제폐간당하고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하는 파쑈의 란무장, 인권의 암흑지대가 바로 남조선이다.

남조선여야당을 비롯한 여의도의 식객들은 제 할바는 하지 않고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탕진하는데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 위한 법 하나라도 똑똑히 만들어내는것이 좋을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반공화국대결적인 《북인권법》을 조작하려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릴것이다.

우리는 남조선과 세계의 량심적인 민주법률가들이 남조선위정자들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의 불법성과 허황성을 똑바로 보고 이를 규탄배격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주체104(2015)년 9월 18일
평 양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이룩해야 할 과제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8일 남조선집권자의 황당한 《통일외교》를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현 당국자가 해외에 나가 그 무슨 《조속한 통일》을 운운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통일은 다른 나라와 할 일이 아니라 같은 민족인 북과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사설은 외세의 그 무슨 역할로 조선반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 통일을 이룰수 있다고 보는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현 《정부》의 《통일외교》는 그동안 남과 북이 합의한 통일의 대원칙과도 정면배치된다고 밝혔다.

남과 북은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이래 2000년의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에 이르기까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원칙을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이룩해야 할 과제이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다른 나라들의 힘을 빌어 무엇을 이루어보려는것은 민족을 죽이는 길이라고 하면서 집권자가 력사의 교훈을 다시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남북화해!》, 《평화실현!》

전라북도 전주에서 통일념원마라손 진행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의 주최로 13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6.15공동선언 15돐기념 통일념원마라손이 진행되였다.

청소년들과 시민들 3 000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민족이 서로 만나는것이 곧 통일이라고 하면서 남과 북이 화해의 력사를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만남이 통일이다》라는 글이 씌여진 풍선을 하늘에 날리며 《남북화해!》, 《평화실현!》의 구호를 웨쳤다.

이어 마라손이 시작되였다.

참가자들은 6.15km구간을 달리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동시장구조개악책동중지를 요구

남조선공공부문 로동자들 항의투쟁, 진보련대 성명 발표

남조선의 진보련대가 14일 성명을 발표하여 로동시장구조개악안반대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민주로총이 참가하지 않은 반쪽짜리 《로사정위원회》에서 끝내 로동시장구조개악안에 대한 합의를 이룬데 대해 비난하였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골자로 하는 로동시장구조개악안을 《국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협박, 기만을 일삼은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현 《정권》은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반로동《정권》이라고 성명은 단죄하였다.

성명은 만일 개악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업주측의 부당한 전횡에 맞서 싸우는 로조원들이 해고로 내몰리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저들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로동자들에게 떠넘기는 현 《정권》과 재벌의 야합으로 산생된 개악안은 완전무효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쌓이고쌓인 민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단체가 로동자들과 함께 로동시장구조개악안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

남조선의 공공운수로조, 보건의료로조, 금융로조를 비롯한 공공부문 로조원들이 남조선당국의 로동시장구조개악책동에 항의하여 12일 서울 종로구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그들은 현 《정부》가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확대 등을 노린 로동시장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시간까지 정해놓고 로동자들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는 당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현재 재벌기업들이 보유하고있는 자금의 일부만 돌려도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면서 《정부》는 로동시장구조개악에 앞서 재벌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규탄하였다.

민영화와 비정규직, 하청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부를 축적한 재벌과 《정부》의 일방적인 로동시장구조개악책동이 계속된다면 로동자들은 총파업투쟁으로 맞서 싸울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해병대무력 최전연일대에서 침략전쟁연습에 광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뉴시스》에 의하면 미제침략군 3해병사단과 남조선의 2해병사단 무력이 7일부터 경기도의 최전연일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타고앉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에 돌아치고있다.

11일까지 김포에 있는 훈련장에서 조선반도산악지형에 익숙하기 위한 유격훈련에 광분한 호전광들은 13일부터 도시지역에서의 전투, 개인화력무기사격 등의 훈련을 벌려놓았다.

때를 같이하여 파주에서는 해병대에 소속된 포병무력이 진지점령훈련, 상황조치훈련, 포사격훈련에 열을 올리고있다.

18일 합동포실탄사격훈련을 마친 후 호전광들은 다음날부터 포천에서 상대측 진지를 돌파하기 위한 련합기계화무력의 전투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해병대의 각 병종무력으로 계획수립, 명령하달, 직승기공중돌격, 땅크기동 등의 협동작전훈련을 강행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 발작적인 불장난소동은 조선반도긴장사태를 해소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분위기를 해치는 위험한 전쟁광증이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개선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미국의 호전적책동에 편승하여 북남합의의 파기를 불러올 침략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불법무도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

—팔레스티나대통령 마흐무드 아빠스가 11일 이스라엘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고등재판소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팔레스티나인거주지들의 철거를 합법화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정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또한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들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

—요르단 종교 및 이슬람교문제상이 10일 알 아크사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간섭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정부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팔레스티나사회단체 성원들의 사원출입을 금지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스라엘은 이슬람교도들의 활동을 통제할 아무런 권리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요르단정부는 이스라엘의 부당한 간섭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유엔 중동문제담당 특사가 7일 이스라엘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당국이 지난 7월에 감행된 팔레스티나인주택방화사건의 혐의자들로 지목되고있는 유태인극단분자들을 아직까지 체포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문제시하였다.

그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13일 수십명의 이스라엘경찰이 동부꾸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뛰여들어 팔레스티나이슬람교도들의 출입을 가로막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반발하여 팔레스티나인들은 돌과 화염병들을 던지며 경찰들의 탄압에 완강히 맞서 싸웠다고 한다.

웰남에서 벼가을

에볼라비루스 전파

시에라레온에서 최근 에볼라비루스가 계속 퍼지고있다.

11일 국가에볼라대응쎈터는 나라의 북부지역에서 또 한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주일동안에만도 5명의 에볼라환자가 등록되였다.

정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미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3) ◁

위성사진 하나로 전쟁을 일으킨 모략의 극치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평화와 안정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끊임없는 류혈전이 계속되고있는 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물음을 받으면 중동을 짚을것이다.

그것은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 수리아와 예멘, 이라크 등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서 계속되는 무장충돌, 《이슬람교국가》에 의해 빚어지는 참상들이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있기때문이다.

하다면 중동지역의 이 모든 불안정과 혼란, 무질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중동평화의 《중재자》라고 자처해온 미국에 의해 산생된것이다.

페르샤만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미국이 세계를 기만하고 대대적인 무력을 중동지역에 들이민 그때부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더욱 극심히 파괴되였다.

페르샤만전쟁은 표면상으로 1990년 8월초에 발생한 이라크—쿠웨이트군사분쟁이 발단이 되여 일어난것으로 국제사회에 비껴있다. 하지만 실지로 이 전쟁은 전략적요충지이며 원유자원이 풍부한 페르샤만지역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계획되고 폭발하였다.

중동지역 특히 페르샤만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및 천연가스산지이다.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의 약 67%의 원유매장량과 31%의 천연가스매장량이 이곳에 집중되여있었다.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0%, 서유럽이 수입하는 원유의 52%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원유는 서방나라들의 경제명맥을 좌우지하고있었다. 미국은 중동지역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중요한 고리로 삼았다.

미국은 일찌기 중동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주구들을 내몰아 군사정변을 일으켜 친미정부를 세워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내세워 《대리전쟁》도 해보았다.

또한 지역나라들사이에 리간과 갈등을 조성하여 이란—이라크전쟁도 일으켰고 아랍나라들에 《미소정책》도 써보았다. 그러나 아랍세계의 강한 불만과 서방나라들에 대한 배척으로 미국은 이 지역문제에 끼여들기 힘든 처지에 놓여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라크—쿠웨이트군사분쟁이 일어났다. 사실 중동지배전략실현에서 이라크를 주역으로 선정한 미국은 국경가까이에 있는 유전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쿠웨이트와 분쟁을 벌리고있는 이라크의 감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쿠웨이트를 침공하도록 부추기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스탠포드종합대학 후버연구소 특별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쿠웨이트의 원유자원은 무진장하다. 쿠웨이트는 서유럽나라들 특히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있다. 그런데 유럽통합움직임과 관련하여 1989년경부터 쿠웨이트는 내리막길을 걷고있는 미국보다 륭성하는 유럽에로 투자를 옮기기 시작하였다. 미국에 있어서 이것은 큰 타격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라크로 하여금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하고 그것을 미국이 격파하는 계획을 짜지 않을수 없었다.》

이라크—쿠웨이트군사분쟁으로 지역나라들속에서는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가 조성되였고 유럽은 저들의 가장 중요한 원유공급지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미국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중동지역을 지배하는데서 중요한 돌파구를 열게 하는 《사막폭풍작전》계획을 세웠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페르샤만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것이였다. 바로 여기에 교묘하게 씌먹은것이 위성사진이였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군이 땅크를 앞세우고 쿠웨이트시에서 남하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경쪽으로 진출하는것 같은 장면이 찍힌 하나의 정찰위성사진을 날조해가지고 세계에 《싸담의 다음번 목표는 사우디 아라비아이다.》라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불어대며 반이라크공세와 침략구실을 마련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페르샤만주변에는 중동지역의 6개 나라를 포함한 20여개 나라의 군대들로 구성된 미국주도의 다국적무력이 집결되였다.

다국적군의 무장장비는 대부분 미국의것이며 다국적무력의 근 80%에 해당되는 52만 7 000여명이 미군이였다. 1991년 1월 17일 미군은 위성사진 하나를 내들고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페르샤만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페르샤만전쟁에서 렬화우라니움탄만 해도 94만 4 000개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의한 방사선방출로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이라크인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은 오늘까지 암과 백혈병, 불임증 등 악몽과 같은 렬화우라니움탄후유증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워대며 저들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고있지만 력사에 남긴 침략과 살륙, 피의 자욱을 절대로 지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룡

ㄱ-51148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